

ABSTRACT

The Berbers, the indigenous people of North Africa, have embraced Arabic Islam as their destiny.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Aurès region of eastern Algeria and the High Atlas region of Morocco. Compared to other Berber-speaking regions, many people here say that "Arabs and Berbers are not different, and that the difference is not importan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many Berbers who strongly deny identifying with Arabs. "We are Berbers, not Arabs," they say. The Kabylis of Algeria are a case in point. Some, like the Tuaregs, have converted to Islam but retain their culture, which is distinct from that of the Arabs, while others, like the Mozabit in the Mزاب region, have adopted a different form of Islam, a distinctive sect called Ibadism, which they identify as Berber. Others, like the island of Djerba in Tunisia, are multi-faith (Christian, Jewish, Muslim, Islamic Ibadism, etc.) and have a different identity. All of them express their identities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they treat Islam, depending on their tribe, depending on which language they speak more, or even depending on whether they live in the mountains, the sea, or the desert. So it's not uncommon to hear someone say, "We are Berbers, not Arabs," and some of them don't even speak Arabic.

If you talk to Berbers, you'll hear them use a lot of different ways to identify themselves. Arab, Berber, Algerian, Moroccan, Kabyle, Chaoui, Mozabit, Tuareg, Rifain, Zerbi, Nepousa, Imazighen, are just a few of the many ways they refer to Berbers. As such, Berbers do not define themselves by any one identity.

These diverse expressions of identity require us to understand that there is another side to the region that is not necessarily Arab-Islamic, and we need to develop mission strategies through research and fieldwork. In order to study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fact that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cannot be defined as Arab Islam, and that is the presence of Berber and, by extension, Jewish culture and even Christianity, even if they are not overtly expressed. This is why a new perspective on missionary strategy is needed, one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Key word: North Africa, Maghreb, Berber, Arab Islam, missionary strategy

I. 베르베르를 말하기 위해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마그레브’(Maghreb) 지역은 ‘해가 지는 지역’이란 말이며, 아랍어 ‘알-마그립’(Al-Maghrib)에서 유래한다. 마그레브 현지인들은 이 용어가 아랍인이 오면서 일반화되었다고 하지만, 중세 시기에 오늘날 알제리 동부와 튀니지, 리비아 서쪽 지역을 지칭한 ‘이프리카야’(Ifriquia)와 구분하고자 사용하기도 했다. ‘마그레브’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는 지역적인 의미도 포괄하고 있다. 아랍인은 아프리카의 텅 빈 사하라와 지중해에 고립되어 있다는 증거로서 이 지역을 ‘서쪽의 섬’(아랍어로 ‘Djazirat al-maghrib’)으로 지칭했다고 한다(공일주 1998, 18-19). 하지만 이 모든 용어상의 의미를 넘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그레브’라는 용어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지칭할 것이다.

역사 이래 다양한 문화가 ‘교차’와 ‘혼성’을 해온 마그레브 오늘날 세계화의 문제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어가 상용어인 알제리와 모로코에서는 베르베르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현재는 아랍어와 더불어 베르베르어(현지어로 아마지그어, 혹은 타마지그트어)가 공용어(official language)의 위상을 갖고 있다(임기대 2023). 리비아, 튀니지,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에도 베르베르어와 문화는 지역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투아레그(Touareg)족도 그렇고, 튀니지와 같이 아랍화된 국가도 ‘아랍의 봄’(Arab Spring)¹⁾ 이후 베르베르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튀니지 사회 속에서 존재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투아레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사헬 지역에서 중앙 정부와 극한 대립을 하며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 투아레그인들이 있는 국가들이 그러하다. 이 지역은 현재 전 세계화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국가들이다(임기대 2024)²⁾. 프랑스와 벨기에 같이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를 통해 베르베르 및 마그레브 문화를 직접 접하며, 유럽에서 디아스포라(Diaspora) 문화를 새롭게 일궈가고 있다(임기대 2021a).

베르베르문화는 마그레브 지역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했다. 때로는 페니키아와 로마와 더불어 지중해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기도 했고, 이슬람과 더불어서는 아프리카 대상로를 개척하며 지역의 이슬람화를 주도했다. 스페인과 시칠리아섬을 이슬람화하는 데에서도 베르베르인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듯 과거 사하라 대상과 지중해 상인을 연결한 사람들은 베르베르인이었으며, 유럽에 이슬람을 소개한 세력에도 베르베르인이 있었다. 현대 들어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문화 속에서 이들의 활동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프랑스 문화와도 공존하고 있으며³⁾, 때

1)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생계난을 호소한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폭발된 대규모 민중 시위를 일컫는다. 이후 인접 국가 리비아, 이집트,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으로 확산하며 철권통치를 펼쳐 온 독재자들을 하야시켰다. 이를 계기로 ‘아랍의 봄’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2) 세계화의 문제라 함은 기후 환경, 난민, 빈곤, 교육, 분쟁, 젠더 등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SDGs) 17개의 항목에 대개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3) 베르베르 역사, 문화, 디아스포라,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은 임기대의 저서 『베르베르 문명: 서구중심주의에 가려진

로는 프랑스라는 국가적 정체성과 아울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박단 2013).

상술했듯이 마그레브 지역 이슬람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이슬람 확산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그런데 주목할 사안은 이베리아반도의 이슬람화에 있어 베르베르인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 또한 매우 크지만 역사에서는 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레콩키스타’(Reconquista, ‘재정복’을 뜻함)를 전후한 시기 마그레브 지역에 안달루시아 문화를 역으로 전파한 세력은 베르베르인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역사에서는 그리 드러나지 않고 있다. 21세기 들어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에서 마그레브 출신 이민자 베르베르인은 여전히 거대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유럽에서 새롭게 전파해가며 유럽 문화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영토는 아니지만 디아스포라 공간에서 유럽의 문화적 색채를 다양하게 하는 주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임기대 2021a).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서구 문화를 마그레브 지역으로 들여와 지역 문화와 접목시키며 자신들의 고향 문화의 색채를 변화시키고 있다. 마그레브 지역이 같은 이슬람이면서, 아랍이라고 하면서 여타 중동문화와 결을 달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거대 문명은 아니지만 마그레브 지역을 두고 안달루시아, 시칠리아 문화를 비롯한 지역 문화가 어떻게 융해되고, 순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듯 마그레브 지역은 그 고유의 정체성을 역사적 과정에서 보이면서 베르베르인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중세에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대 들어 식민지배로 인해 베르베르인은 프랑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베르베르어 사용자는 프랑스 전체 인구 중 약 200만 명을 헤아린다. 프랑스 내 마그레브 이민자 수는 프랑스 전체 인구 중 약 500만 명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은 수치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마그레브 지역과 ‘베르베르’를 이해하지 못하고 프랑스 내의 다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외래문화인 베르베르문화, 나아가 마그레브 문화가 프랑스 문화와 혼합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역으로 프랑스 내 이민자 문화도 마그레브 지역 전통문화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상승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마그레브의 예술가, 문인들이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프랑스의 예술가와 문인들이 마그레브 지역에서 서로 교감하고 통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 문화를 서로 주고받는 상호영향 관계 속에서 본다면 베르베르 문화는 매우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매개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베르베르인이 주 무대인 마그레브 지역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중첩되어 있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문화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베르베르문화는 지중해 문화와 안달루시아 문화, 시칠리아 문화와도 중요한 관계를 맺었다(임기대 2021b). 베르베르인과 그들 문화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구분되는 지점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중해 문화가 어떻게 아프리카로 확산해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다(임기대 2020). 이런 베르베르인을 우리는 지리적 단위의 아프리카, 혹은 종교적 단위의 무슬림 공간으로만 인식하였고, 이런 점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과 그들이 일군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간과하였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그것은 또한 세계 지역,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 서구 중심의 분류체계나 세계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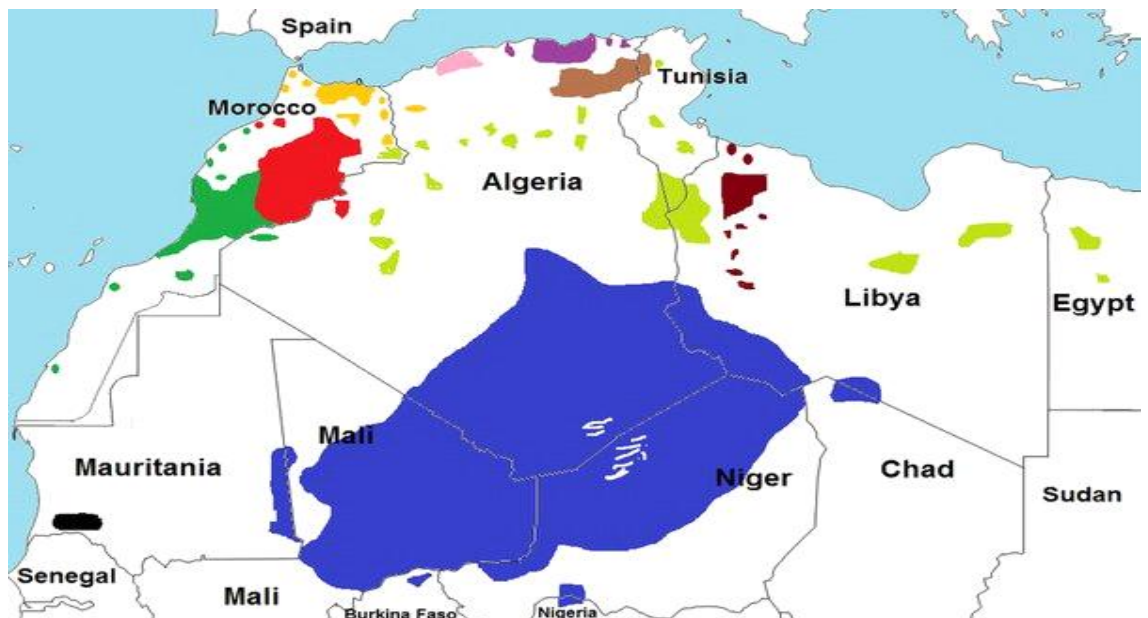
이슬람과 아프리카의 재발견』을 참고할 수 있다. 본 내용은 상기 저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대폭 수정, 첨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이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에 대해 새롭게 보고자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럴 때 기독교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 마그레브 지역 내의 베르베르인

이번 장에서는 마그레브 지역 내에 있는 베르베르인 누구인지에 대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언급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더 미시적 단위의 베르베르인이 구분되고 있지만 큰 틀 속에서 베르베르인을, 지역을 이해하고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베르베르인을 보고자 한다⁴⁾.

그림 1. 베르베르인의 분포⁵⁾



4) 베르베르인, 지역별 분포 등은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임기대의 저서 및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5) 출처: <https://www.quora.com/What-do-you-know-about-Berber-languages>

1. 카빌인과 리팡, 슈누아

서구 사회에 가장 많이 알려진 베르베르인은 베르베르인이다. 알제리 북부 해안부에 위치한 베자이아(Bejaïa)를 중심으로 한 카빌리아에 이 카빌인이 있다. 카빌인은 해안부와 인접한 산악지대에도 대단위로 살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알제리의 해안에서 조금 내륙지역으로 들어오면 텔 아틀라스(Tell Atlas)산맥이 해안부와 내륙부를 가르고 있다. 스페인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의 해안부와 산악지대가 겹쳐 있는 모로코 북부에서는 리팡(Rifain)이라는 베르베르인이 주로 살고 있다. 리팡은 험준한 리프(Rif) 산맥을 무대로 생활하고 있지만, 나도르(Nador)나 테투안(Tetuan)과 같이 지중해와 인접한 도시에도 있다. 거의 카빌인과 마찬가지로 산과 바다가 주 생활 무대이다. 이들은 간혹 탕헤르와 라바트 등의 전통 시장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들은 스페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안달루시아 문화를 공유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모로코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가장 독자적이면서 반정부적 목소리를 내는 곳이기도 하다. 유럽에 가깝고 지중해에 인접해 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반정부 투쟁을 수시로 한다. 카빌인과 리팡은 각각 프랑스와 벨기에에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있다. 특히 지네딘 지단, 벤제마와 같은 축구선수, 이자벨 아자니와 이디르 등의 예술인, 많은 문학가들이 프랑스에 족적을 남길 정도로 유명한 인물들이다. 중세시대 기독교 신학자 성어거스틴은 오늘날 알제리의 카빌리아 지역 사람이다.

알제리 수도 알제 서쪽으로 약 70km 산악지형(905m)인 슈누아(Chenoua)는 알제리에 있지만 지리적으로 먼 모로코의 슬뢰흐(Chleuh)와 같은 베르베르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하라 북쪽의 음자브(M'zab)와 오레스(Aures), 슈누아가 모로코의 슬뢰흐와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알제리와 모로코 국민들이 자신들이 형제국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랍 이전의 역사적 산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갑론을박이다. 왜냐하면 슈누아가 다른 세 지역에 비해 현재는 베르베르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를 통해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중해 인근 지역과 사하라 일대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이들 지역 베르베르인의 정체성은 그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다. 이는 이들 지역이 지중해와 아프리카의 중간 지역에 겹쳐 있으면서 유럽인, 아랍인, 유대인 등과 교류를 해왔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고유의 문화는 많은 부분 희석되었고, 음자브의 모자비트 사람들과 수스의 슬뢰흐가 그나마 이슬람을 수용하고서도 베르베르 전통을 잘 고수하고 있는 편이다. 상대적으로 아랍화가 잘 진행된 오레스와 슈누아의 경우 전통 행사와 같은 문화적 행사를 통해 베르베르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오레스 지역은 가장 먼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슬람화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지역도 최근 들어서는 베르베르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 슬뢰흐

모로코 남서쪽으로 가다 보면 슬뢰흐(Chleuh)사람 혹은 슬뢰흐어를 사용하는 베르베르인이 있다. 모로코 베르베르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로 주로 아틀라스(Atlas) 산맥과 수스(Sous)지역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한다. 마그레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수를 자랑하는 베르베르인들이다.

이들이 지중해적 특성에 가까운가, 아프리카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고려하는 일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역사적 과정에서 동부와 남부쪽에서 온 베르베르인과 아랍인, 유대인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베르베르인과 일부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예 무역도 중요한 한몫을 했다. 또한 아르간과 올리브, 설탕을 재배하여 포르투갈, 네델란드, 영국 상인에게 판매를 했고 사하라 횡단 무역로를 통해서도 황금 교역의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했다. 오늘날 모로코 서남부지역의 아가디르(Agadir)와 마라케시(Marrakech), 에사우이라(Essaouira)가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마그레브 최초의 시아파 이슬람 왕조인 이드리스(Idriss) 왕조를 세웠고, 안달루시아와 서아프리카 일대를 포함 한 지역까지 통치한 알모라비드, 알모하드, 마린 왕조 등을 건설하여 마그레브 지역에서 이슬람의 전성기를 열기도 했다.

그림2. 베르베르인의 여러 형태 I6)



카빌 대학생



샤우이 대학생



리펑 주부



슬릭흐 주민

3. 샤우이와 모자비트

알제리 산악부를 지나 고평원 지대에 이르면 바트나(Batna)와 켄첼라(Khenchela)를 중심으로 하는 오레스(Aurès) 지역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흔히 고평원 지대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샤우이(Chaouis)로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마그레브 지역과 더 나아가 이베리아반도까지를 이슬람화하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부족이며, 현재는 가장 아랍화 된 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도 최근에는 자신들의 고유 정체성을 찾으려는 운동이 활발하다. 마그레브지역 초기에는 이 지역민들이 건립한 여러 형태의 이슬람 왕조와 이슬람 확산 및 저항과 관련한 여러 인물이 있었다. 마그레브 지역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수프리즘(Sufrism, 742-790)⁷⁾ 왕조를 비롯하여, 아랍어 ‘자발 타리크’(Jabal Tariq, ‘타리크의 산’)에서 유래한 ‘지브롤터’(Gibraltar), 중세 지중해 이슬람 왕조 자이야

6) 본고에서 제시한 사진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것임.

7) 수프리즘 이슬람은 수니도 시아도 거부하는 제 3의 종파에 속하는 이슬람이다. 이들은 만민평등주의를 내세우며 마그레브 이슬람화를 초기에 주도했다.

니드 왕조(Zayyanid, 1236-1556)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마그레브 최초의 정복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총독을 역임한 오크바 이븐 나피(Oqba Ibn Nafi, 622~683)를 살해한 베르베르인 카히나(Kahina, 688~703)는 샤우이 사람이다. 오늘날 알제리 여성 운동의 시발점으로 역사가들이 꼽는 인물이다. 이들은 중세시대 제나타(Zenata) 베르베르라는 이름으로 안달루시아 점령까지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다.

본격적인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기 전 이른바 암석사막에 자리한 가르다이야(Ghardaïa)를 본거지를 하는 음자브(M'zab)지역에는 모자비트라 불리는 베르베르인이 거주한다. 이들 또한 중세시대 제나타 베르베르인의 일파였지만, 이슬람 이바디즘(Ibadism)⁸⁾을 신봉하고, 음자브 계곡에 거주하며 오늘날 모자비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인구는 대략 40만 명(2012년 기준) 정도로 추산되지만 마그레브와 사하라-사헬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보면 이들의 인구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현지인들은 통계상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백만 명의 모자비트족이 마그레브 전역에 걸쳐 있다고 한다. 이븐 칼둔(Ibn Khaldun 1969: 851)에 의하면 ‘음자브’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아랍어 ‘Al Azzaba’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오레스와 음자브,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아랍·이슬람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베르베르인 문화권이다. 오레스의 경우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베르베르 문화를 보존하는 것에서는 여타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 이슬람을 철저히 믿으면서 베르베르 전통을 고수한다는 것이 이 지역에는 구두 전통이 많이 발달해 있다. 음자브지역에서는 이슬람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일반 이슬람의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흔히 말하는 이슬람 제 3의 종파인 카와리지파의 일파인 이바디즘(Ibadism)의 본 고향임을 자처하고 있는 곳이 음자브 지역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다른 지역의 이바디즘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아라비아반도 오만의 이바디즘이 군주제 성격을 띠고 있기에 모자비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준다. 평등주의를 내세우는 자신들의 이념과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제르비

튀니지의 제르바(Djerba) 섬은 알제리 음자브 지역과는 다른 특이성을 보인다. 제르바 섬은 음자브의 모자비트족과 종교관에 있어 거의 비슷하지만, 주어진 환경은 매우 다르다. 음자브 지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험준한 사막 지역에 위치한 반면, 제르바 섬은 여러 이슬람 왕조와 이민족 사이에서 공존하며 생존을 모색해야 했다. 당연히 설아야 한다는, 생존해야 한다는 본능이 제르바 사람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제르바 섬은 ‘섬’이라는 공간, 게다가 마그레브 지역의 국가 간, 그리고 마그레브와 시칠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중요 연결 지점에 있다. 게다가 이곳은 오랜 유대인의 거주지가 크게 번성했던 곳이다. 흔히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은 제르바 섬을 가르키고 있다. 여러 문명이 거쳐 가거나 공존하다 보니 종교적 색채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슬람적 정체성 또한 음자브 지역에 비해 매우 약한 편이다. ‘제르비’(Djerbi)라고 부르는 이 지역 사람들은 파티마 왕조(Fatima, 909-1171)를 카이루안을 중심으로 세웠지만, 이집트로 간 이후 이 지역은 베르베르

8) 수프리즘과 같은 제 3의 종파에 속하지만 수프리즘에 비해 온건하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 초기 이슬람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임기대 2019).

왕조와 갈등을 빚었다. 베르베르인은 말레키(Maleki) 이슬람을 신봉하는 아글라비드 왕조(Aghlabid, 800-909) 치하에서 차별을 받았기에 반목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파티마 왕조가 들어서면서 알제리와 세네갈에서까지 온 베르베르의 쿠타마(Kutama)족이 파티마에 적극 협조하며 시아파 이슬람이 중부 마그레브 지역에서 건고히 자리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 카이로로 수도를 옮겨가면서 쿠타마족 또한 대거 이집트로 건너간 후 11세기 아랍인 바누 힐랄이 유입될 때 대거 아랍화되어 마그레브 지역으로 들어왔다. 복잡한 지역 상황 만큼이나 ‘제르비’는 생존을 위해 이들과 타협하거나 공존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3. 베르베르인의 여러 형태 II



모자비트 부족장



모자비트 여성



제르비 원주민



모자비트 청소년

5. 투아레그인

투아레그인을 말할 때 인종이나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주로 어느 국가와 어느 지역에 걸쳐 살고 있다는 유목민으로 말할 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국가에 들어가 살고 있는지 말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그 어떤 베르베르인들보다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지칭할 때 ‘켈 타마체크’(Kel Tamacheq, 투아레그어를 말하는 사람들) 혹은 ‘켈 티겔무스트’(Kel Tiggelmoust, 남색 두건을 두른 사람)라고 부른다(Edmond et Suzannes Bernus, 1983, Hélène Claudot-Hawad 2001). 이들은 베르베르인 중에서도 ‘아프리카성’에 상대적으로 근접해있는 사람들이다. 투아레그인들은 알제리, 리비아, 니제르, 말리 등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지만, 차드와 부르키나파소 등의 사헬지역 국가에도 존재하며 국가 구성의 중요한 틀을 담당한다. 전체 인구는 약 15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이 통계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이들은 오늘날 리비아, 말리, 니제르 등의 지역에서는 분쟁의 중심에 있다. 특히 말리와 니제르는 이슬람 테러집단과의 경쟁에서도 독자적 행보를 하려고 한다(임기대 2016). 2011년 리비아의 가다피가 붕괴한 이후 갈 곳 없던 가다피 용병 투아레그 사람들이 말리로 몰려와 테러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리비아 내전과 튀니지의 극단 이슬람 무장 세력에게 무기, 마약 등을 제공해주며 밀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말리와 니제르 등의 사헬지역에서는 자신들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대척점에 있기도 하다. 서아프리카의 밀매 조직과 관련한 여타 부족, 투아레그인의 상술과 지역적 특징까지 복합적으로 얹히면서 지역 내의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까지 테러나 분쟁이

많아지면서 사헬지역이 제 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지역은 잦은 쿠데타 발생 지역이기도 하다⁹⁾.

그림4. 베르베르인의 여러 형태 III



투아레그 부족장



투아레그 주민



투아레그 아이

투아레그인이 오늘날 분쟁의 중심에 있게 되었지만 이들은 베르베르와 관련하여 상당한 문화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투아레그인의 기원을 밝히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 문자가 오늘날 베르베르 문자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베르베르 문자가 페니키아에서 유래했다는 설을 비롯하여 여러 가설이 있지만, 투아레그인은 고대 아마지그어의 방언을 사용했고, 알파벳 또한 오늘날 베르베르어권 화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오-티피나그(Neo-tifinagh)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과거 문자가 오늘날 베르베르인의 문자인 네오-티피나그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베르베르어의 기원이 페니키아어인지의 문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분명한 점은 베르베르어가 토착 문화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사하라를 중심으로 활동한 투아레그 사람들의 문자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페니키아어와는 달리 투아레그인의 문자와 모음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이런 역사적 연원을 따져보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유래한 것에 문제가 있다면 베르베르어의 기원은 여전히 쉽게 말할 수 없는 신비스런 영역에 있다. 어쨌든 베르베르어에 대한 투아레그어의 영향력은 실질적인 사실이며, 이는 지중해가 아닌 아프리카 문명과의 연관성도 있음을 보여주며, 오늘날 베르베르인의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네푸사

리비아의 베르베르인을 일컫는다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베르베르인으로 리비아에 실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리비아의 아랍화 정책과 여러 불안 요소들로 알제리와 모로코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리비아의 제벨 네푸사(Jebel Nefusa)의 고원과 언덕과 리비아 남서부의 페잔(Fezzan) 오아시스에 주로 살고 있다. 이들은 구약성경 속의 이집트 파라오 시삭

9) 말리의 경우 2021년, 부르키나파소는 2022년(두번), 니제르는 2023년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지역이 ‘쿠데타 벨트’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Shocheng)과도 맞닿아 있다. 솔로몬 사후 5년 즉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의 파라오 시삭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열왕기상 14:25, 역대하 12:2-4). 유다의 요새 성읍과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여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탈취해갔으며(열왕기상 14:26, 역대하 12:3-9) 솔로몬의 금방패도 탈취해갔다. 이 당시 시삭의 침공을 피해 마그레브 지역으로 들어온 유대인이 마그레브 최초의 유대인이라는 설도 있다. 이렇듯 네푸사는 유대인, 이집트 파라오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람들로 오늘날 베르베르 문명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III. 선교 전략

마그레브 지역의 특수성과 선교적 함의는 이슬람으로만 귀결시킬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 지역의 선교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라는 것으로 귀결시키지만 내부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히 이슬람으로만 말할 수 없는 복합적 요소들이 많다. 우리는 ‘베르베르’(Berber)라는 단어를 통해 ‘서구중심주의’, ‘아랍·이슬람중심주의’ 시각을 벗어난 지역의 이해, 선교적 사명을 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그레브 지역은 아랍 이슬람 만이 아닌 지중해, 사하라, 서아프리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베르베르인의 활동 무대이다. 아랍이슬람화 되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베르베르 부족 이름과 주요 부족이 있는 국가, 국가 내에서 베르베르인의 위상에 대해 생각하며, 지역별 선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동일한 지역이 아닌 차이적 관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선교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프랑스가 척박한 사하라 일대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선교사들의 개척 정신이 있었다. 선교사들이 식민지배의 수월성을 담보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선교사들은 험한 곳에서 도전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했다. 지금 이 시각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관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논문은 임기대의 저서 <베르베르문명: 서구중심주의에 가려진 이슬람과 아프리카의 재발견>(한길사, 2021)>에서 소개한 베르베르인들에 대한 내용과 상기인의 여러 논문을 바탕으로 대폭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공일주 & 전완경, 1998. 『북아프리카사』, 대한교과서.
- 박단, 2013,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학교출판부.
- 아와드, “투아레그족의 고독한 투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05.14.
- 임기대, 2016, “‘알무라비툼’을 통해 본 마그레브 테러 집단 간 대결 양상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8, 29-60.
- 임기대, 2019. “안달루시아와 마그레브에서 베르베르 부족 ‘바누 이프렌’(Banu Ifren)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57집. 339-367.
- 임기대, 2020, “중부 지중해 지역의 ‘산하자’ 베르베르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112, 191-221.
- 임기대, 2021a, “모로코와 벨기에의 베르베르 ‘디아스포라’와 ‘베르베르-되기’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114, 215-242.
- 임기대, 2021b. “시칠리아 이슬람화와 ‘이프리카야’(Ifriquia) 베르베르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63집. 139-171.
- 임기대, 2021c, 『베르베르 문명: 서구중심주의에 가려진 이슬람과 아프리카의 재발견』, 한길사.
- 임기대, 2023, “알제리 언어정책의 새로운 변화 양상: 프랑스어 배제 정책과 정치적 상관관계”, 한국프랑스학논집 122, 99-127.
- 임기대, 2024, “프랑스어권 사헬(Sahel)지역의 쿠데타 발생과 프랑스, 알제리의 입장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125, 129-156.
- 조명진, 2012, 『유로피안 판도라』, 안티쿠스.
- Edmond et Suzannes Bernus, 1983, *Qui sont les touaregs*, Paris, L’Harmattan. Paris.
- Camille & Yves Lacoste, 2001, *Maghreb, peuples et civilisations*, La Découverte, Paris.
- Gabriel Camp, *Les Berbères: Mémoire et Identité*. France: Actes Sud.
- Hélène Claudot-Hawad, 2001, *Éperonner le monde: Nomadisme, cosmos et politiques chez les Touaregs*, Édisud, France,